등록번호	성평등팀-3818
등록일자	2015.12.03.
결재일자	2015.12.03.
공개구분	공개

결재	★연구위원	성평등팀장	여성정책실장	대표이사
	이승미	국미애	조영미	12/03 이숙진
협조				

『서울시 장애여성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장애여성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5년 11월 12(목) 10:30~12:30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4

□ 참석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심진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 연구원
손은주	장애여성네트워크
김공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
고정희	㈜우리성원 대표
조영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장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팀장
이승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팀 연구위원
이민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팀 공무직

- 그 외: 서울시여성농아인 어울림센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영등포장애인부모회, 재단 직원 등 총 30여 명

□ 논의안건

○ 연구 체계 및 내용에 대한 의견

○ 정책 제언 보완사항 등

2 주요내용

□ 발표 : 이승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 주제: 서울시 장애여성 노동시장진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

○ 내용:

- 서울시 장애여성 경제활동실태 및 연구체계 설명
- 서울시 등록 장애인 현황
- 서울시 장애여성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현황
-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미고용 업체 현황 및 사례조사 주요 분석결과
- 정책제언

□ 토론주제 1 : 연구체계에 대한 의견

- 장애집단 내부의 이질성 극복 필요 등

○ 심진예 :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계층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인과학적인 특성 그리고 장애에 따른 직무능력 손실 정도 등에 따라서 살펴보면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변수 주제들이 많기 때문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현하기 위해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첫째, 정책대상을 좀 세밀화하고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내려는 노력임. 저연령대 중증 지적 장애인, 고연령대 경증 지체 장애인 정책이 구분되어 접근해 서울시 장애 여성 지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주면 좋겠음. 두 번째로 연령이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 일관된 변수나 기준에 따라서 표를 좀 작성을 해서 비교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함. 그것을 통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고용대상을 추출하고, 집단별 지원 내용을 좀 차별시킬 필요가 있음. 세 번째로 서울시의 고용, 미고용업체 현황과 다른 지자체, 단체 현황의 비교가 이루어지면 우월적인 부분,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음. 마지막으로, 서울시 장애여성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연구의

분석, 문제점에 따른 지원이 좀 논리적으로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여성 장애인을 전체 집단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음.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단별 분류해서 집단별 대칭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함. 기업체 장애여성 고용 인력과 관련해서도 연구자분이 제시하신 전략을,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몇 가지 차원으로 꼭지를 좀 나눠서 제시하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것임. 정책 수행주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또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움이 있음. 우리가 노동시장의 진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여서 최저임금 이상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 따라서 서울시 여성 장애인의 빈곤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그것을 경제활동과 결부시켜서 논의가 된다면, 장애여성이 더 정말 많이 빈곤하다면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더 많이 강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빈곤의 계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성 장애인 중에, 그러면 또 고용 전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김광이 : 장애여성에 대한 통계지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음. 사회서비스 제도에도 장애여성의 나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혼인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음. 연구내용에는 고연령대의 중증 장애여성이 6.7%이고 경증이 93.3%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봄.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예 등록 자체도 안 되었을 것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장애여성은 대체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분들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음. 장애 여성들의 직업 중에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많이 나온다고도 발표했는데, 이것은 유형별로 따져봐야 함. 아마 시각장애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 사회복지 쪽에서 장애인 단체나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장애유형별 정리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음. 또 주류 비장애인 사회에 얼마만큼 진입해 있는 것을 별도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음.

□ 토론주제 2 : 정책 제언 보완사항 등

- 사회서비스제도의 보완적 개선

○ 김광이 : 모든 사회 서비스 제도가 장애 여성이 노동할 기회, 노동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해 요소가 되지 않고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제도, 활동보조서비스제도도 마찬가지임. 일을 한다면, 활동 보조를 추가로 받는 시간이 10시간임. 많이 부족함. 나이, 중증장애인, 기혼장애여성의 경우 더 심각함. 사회 서비스가 장애여성이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히려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하는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의무고용제의 경우는 효과가 있으니 (의무고용기업체가 아닌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을 것임.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음.

○ 손은주 : 홈헬퍼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음. 일자리를 고민하기 이전에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장애여성들이 현장에 나가 일하기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홈헬퍼에 대한 지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장애여성들은 마음 놓고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 가운데 출산 도우미나 양육 도우미 등의 지원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제한조건 들이 따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사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음. 장애여성네트워크에서는 순수하게 가사, 양육지원 해서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2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음. 주로 육아하고 가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1대 1로 매칭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음.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할 때는 수급자 중심이 아니었고, 정말 지원을 받아서 수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제공을 해드렸음. “6세 미만의 아이 뿐이 아니라 학령기의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받아서 너무 좋은 제도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꾸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음.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 올해도 계속 문의 전화가 왔었음. 그런데 저희가 시간당 홈헬퍼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음.

기관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때 다른 것 보다는 실전 위주의 사업을 많이 선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기 때문에 홈헬퍼에 대한 의지, 관심 이런 게 거의 전무한 상태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홈헬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함. 2014년 진행했던 맞춤형 홈헬퍼 사업 지원 이후 가사, 학습, 양육, 기타 지원으로 세분화해서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음. 지원된 사업의 경우 대부분 가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장애여성 자립의지 및 직업의식 필요, 온정주의 경계

○ 김광이 :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그만두었다, 취업할 생각을 하지 못 한다", "자신이 없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몸에 안 맞는다"고 한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음. 사회적 환경에서 스스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더 이상 뭔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기가 어려움.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노동시장의 진입하고 노동시간의 진입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회 부정적 태도가 바뀌어야 함. 공단 내에서나 또는 지역 사회 안에서 장애 여성들의 자조·지지·파트너 프로그램, 커뮤니티 파트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불리한 계약조건, 고충을 개인의 문제로만, 나의 특수함으로만 (인식하여) 자꾸 위축하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또,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취업 촉진에 집중하느라 소홀했음. 앞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함.

○ 고정희 : 학교에서 정규 과목을 교육 받을 때는 전혀 동 떨어져있음. 아무도 제재하지 않음. 그런데 사회 나가서는 비장애상인과 똑같은 일을 해내야 되는 인식이 되어야 참.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음. "나는 장애인인데 일을 왜 많이 해야 해?", "난 장애인이니까." 이런 인식이 고쳐져야 함.

○ 청중1 : 시각장애인이고 지금 여성 장애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음. 동료 상담, 일 연계도 하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를 알 수가 없음. 하겠다고 말을 해서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뒤로 쏙 빠지고 이런 게 좀 있음. 장애인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한테 다 있음.

○ 청중2 : 장애인고용기업 대표임. 초중고 학교생활에서부터 온정주의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음. “너는 장애인이니까 앉아있어도 되고 이거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이 부분이 약하지만 이 부분을 할 수 있어”라는 교육이 필요함. 저는 직원들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높은 퀄리티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함.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교육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함.

- 직무교육의 문제

○ 김광이 : 발달장애 직업 훈련에 발달장애남성들은 많이 진입해 있는데, 발달장애여성들은 많이 진입되어 있지 않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발달장애여성에게는 훨씬 적음.

○ 손은주 : 저희(장애여성네트워크) 프로그램 중에서 경제활동 참여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자기 핸드페인팅, 퀼트, 인형 만들기, 동료 상담가 양성 등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음. 실질적으로 동료 상담가는 현재 고1부터 갓 졸업한 친구들까지 다양하게 있음. 그 친구들에게 1대 1로 매칭을 시켰음. 그런데 매칭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임. 비용의 한계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굉장히 어려움. 도자기 핸드페인팅 같은 경우도 저희도 3년 동안 연계 사업으로 계속 교육을 했음. 그런데 생각보다 주문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성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수준의 경지에 이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가부나 서울시에서 실적을 자꾸 요구하나, 교육이 실적과 관계없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생김. (투여되는 예산 대비) 산출되는 경제가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침. 퀼트도 역시 시간을 많이 요함. 따라서 창업을 한다거나 어떤 주문을 받아서 생산품을 내기까지는 한계가 있음.

○ 고정희 : 고용을 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되어야지만 나름의 자기 일을

하게 됨. 교육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됨.

○ 청중2 :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교육 기관이 있음. 교육 기관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취업이나 면담을 의뢰하나,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 재활 기관이나 복지 기관이나 교육 기관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을 잊어버리고 거기 상주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임.

- 시간제 일자리 발굴의 해법 필요

○ 손은주 : 보고서에 보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했음. 그런데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알바임. 시간제 일자리가 잘못 양산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약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됨. 기업체, 정부, 우체국 같은 공공 기관에서 하루에 4시간 씩 지적 장애인들을 받아서 1년 간 계약직을 했었는데, 1년 연장을 하는 경우는 있음. 그러나 2년이 되어 무기계약직 요건이 되면, 계약을 안 함. 2년에서 하루 전날 계약을 해지함. 장애여성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지 못 하고, 결국에는 실업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음. 이런 사례를 보면, 좋은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어떻게 발굴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함.

□ 담당자 평가

○ 연구체계 및 내용, 정책제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특히 장애여성집단 내에 주요변수가 상당하여 이질적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을 적극 반영하여 연령,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이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짐. 한편, 주요변수의 다양함으로 인해 집단의 이질성에 따라 분리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한 고용정책을 발굴하기란 내용이 방대하여 본 연구의 내용에 모두 포함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애여성 내면강화 - 노동시장 진입 - 고용유지 - 이직·실직의 극복

의 단계에 따라 나이와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됨.

○ 현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정책 현황에 비추어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정책 수행 주체의 명확성 확보, 장애여성 내면 강화를 위한 자조·지지·파트너 프로그램의 마련과 지속적 지원, 장애여성 직무교육과 관련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면서도, 조금씩 동시적으로 계획·발전되어야 할 것임.

※ 사진

붙임 : 토론회 웹초청장 1부.

자료집 1부.

자료집 미수록 토론문 2부. 끝.